

Global Defense News

2016년 6월 20일 (월) 제1438호

국방기술품질원 방산정보팀은
지난 Global Defense News와
더 자세한 해외기술정보를 온라인으로
제공하고 있습니다.

- 인터넷망 (<http://www.dtaq.re.kr>)
 - 글로벌디펜스뉴스
- 국방망 (<http://dtims.mnd.mil>)
 - 과학기술동향
 - Global Defense News

 **국방기술품질원**
DTaQ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
www.dtaq.re.kr 055-751-5370,5386

■ 무기체계 소식

C4ISR 이스라엘 콘트롭사, 초장거리 감시체계 스피드-ER 공개

기 동 이스라엘 IAI사, 최신 6×6 전투로봇 로베틀 최초 공개

함 정 · 항 공 러시아, 최대 규모의 핵추진 쇠빙선 '아르크티카' 진수

화 력 · 방 호 프 MBDA사, 5가지 플랫폼에 통합 가능한 MMP 미사일 공개

전재·인용 시 '국방기술품질원'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이스라엘 콘트로프사, 초장거리 감시체계 스피드-ER 공개

- 이스라엘 콘트로프사가 2016 유로사토리 방산전시회(2016.6.13.~6.17, 프랑스 파리)에서 스피드(Speed)-ER로 불리는 새로운 지상기반 초장거리 감시체계를 공개했음.
 - 체계는 자이로안정화(Gyro-stabilized)되고 가시광선, 열상, 단파 적외선(SWIR)의 3개의 채널에서 운용
 - 연무·먼지·강우·높은 습도 및 모든 조도 조건에서도 선명하고 깨끗하며 안정화된 영상을 제공
- 스피드-ER 체계는 다중 센서체계로서 연속 줌 렌즈를 구비한 냉각형 열화상 카메라(MWIR), SWIR 카메라, 2대의 주간용 컬러 카메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.
 - 주간용 컬러 카메라 중 1대는 광시야각(WFOV)용, 다른 1대는 협시야각(NFOV)용으로 사용
- 체계는 국경감시 및 해안선 방호 등과 같은 지상기반 적용을 위해 설계됐으나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및 방공에도 적용됨.
 - 스피드-ER 체계는 모든 기상조건에서 하루 24시간 수십 km의 초장거리 감시를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솔루션이라고 업계 강조



초장거리 감시체계 스피드-ER

| 출처 | Eurosatory: Controp unveils Speed-ER, shephardmedia.com, 2016. 6. 14.

이스라엘 IAI사, 최신 6×6 전투로봇 로배틀 최초 공개

- IAI사가 3년 개발사업 완료 시점에 임박하여 신형 전투로봇 ‘로배틀’(RoBattle)을 국제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(6월 13~17일, 프랑스 파리)에서 최초로 공개함.
- 로배틀은 기동 및 보병 작전을 수행하는 전술 병력과 통합되도록 설계됐으며, 정보·감시·무장정찰 등의 다양한 임무를 지원하고 호송대 방호·유인·매복 공격하도록 설계되었으며, 현재 이스라엘 군과 추가적인 시험을 진행하여 2016년 말에 운용될 것으로 기대함.
- 로배틀은 차량총중량(전투준비 태세)이 적재하중 3톤을 포함하여 7톤이며, 차량이 디젤구동 6×6 굴절식으로 전지형 기동성 향상을 위해 궤도를 장착할 수 있음.
 - 취약 부분에 방호장치와 부가장치 장착으로 생존성이 향상되어 전투피해를 견디도록 설계
 - 제너럴 로보틱스사가 개발한 중량 50kg 원격조종무장장치 '핏불'(Pitbull) 탑재
 - 매니플레이터 팔, ISR 센서, 레이더, 원격제어무기 등 다양한 임무장비 장착 가능
 - 험지 탈출 시 차륜 지상고를 1.2m로 높일 수 있고, 매복 모드에서는 60cm로 낮출 수 있으며, 매복 모드에서 12시간 동안 운용 가능



이스라엘 IAI사 전투로봇 로배틀 LR-3

| 출처 | 1. RoBattle - A New Robot to Spearhead Combat Formations in Battle, defense-update.com, 2016. 6. 8.
2. Eurosatory: Supersized UGV revealed, shephardmedia.com, 2016.6.13.

러시아, 최대 규모의 핵추진 쇄빙선 '아르크티카' 진수

● 러시아의 발틱 조선소는 최신행 '아르크티카'(Arktika)급 쇄빙선의 진수식을 실시하였음.

- 러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추진 쇄빙선을 북극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, 1975년부터 6척을 건조하여 현재 4척을 운용 중임.
- 이번에 진수한 쇄빙선은 러시아가 보유한 핵추진 쇄빙선 중 최대 규모이며,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조
- 이 함정은 서부 북극해를 중심으로 운용될 계획이며, 2017년 해상 운용시험 예정
- 러시아는 2016년 중 또 한 척의 핵추진 쇄빙선 건조에 착수할 계획임.

● 이 최신행 쇄빙선은 크기 173×34m, 33,000 배수톤 규모로 2.9m의 쇄빙능력이 있음.

- 48mm 및 25mm 두께의 이중 선체, 뱃머리는 50cm 두께의 주강으로 제작
- 2기의 171MW OK-900A 원자로를 탑재하여 전기를 생산하며, 연료로는 농축(60%) 우라늄 사용
- 3개의 스크루로 추진하여 최대속도 22kts로 항해
- 다른 함정을 예인할 수 있으며, 75명 탑승 및 헬기 함재 가능



진수식 후의 '아르크티카' 최신행함

| 출처 | RUSSIA LAUNCHES LARGEST NUCLEAR ICE BREAKER, popsci.com, 2016. 6. 17.

프 MBDA사, 5가지 플랫폼에 통합 가능한 MMP 미사일 공개

- MBDA사는 2016년 유로사토리 방산전시회에서 임팩트(Impact) 포탑에 장착된 지상용 중거리 미사일인 MMP의 다양한 운용형상을 공개했음. ※ MMP : Missile de Moyenne Portée (medium range missile)

- MMP는 단독 군장 병사 전투 시 운용하기에 가장 적합하지만, 경장갑차의 주 무장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전자광학장비를 재활용하여 중량급 전투장갑차 포탑의 보조무기로 장착 가능
- 공중 운용을 위해 사프란사의 패트롤러(Patroller) 드론 아래에 탑재된 형상도 제안

- MMP는 현대전에 완벽하게 적합한 최신 지상전 미사일임.

- 사거리가 4,000m인 ‘발사 후 망각형(Fire-and-forget)’ 미사일이며, 듀얼모드 탐색기 (비냉각 적외선 채널 및 가시광선 채널) 및 광섬유 데이터 링크가 장착돼 운용자가 직접 제어
- 프랑스 군과 특수부대가 운용하는 밀란 및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2017년부터 MMP로 대체될 예정이며, 프랑스 기갑부대가 운용 중인 HOT 미사일도 대체 예정

※ HOT : Haut subsonique Optiquement Téléguidé Tiré d'un Tube
(High Subsonic Optical Remote-Guided, Tube-Launched)



임팩트 포탑에 장착된 MMP

| 출처 | MBDA Unveils the MMP Missile Integrated on 5 Different Platforms, asdnews.com, 2016. 6. 15.